

“세계와 지역, 생태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미래교육”

전남 수업 대전환 ‘2030교실’

〈2〉화순초 ‘2030 온(ON, 溫) 세상 교실’

4학년 18명 ‘우리의 섬, 독도’ 주제
베트남·홍콩 학생과 화상수업 교류
학부모 등 참여 위해 ‘유튜브 송출’
조영래 교장 “글로벌 주인공 성장”

학생들의 국제교류 수업 등을 통해 세계와 지역, 생태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미래교육 모델이 화순초교에서 꽃피고 있다.

17일 화순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교육청이 추진한 2030교실 공모에 ‘2030 온(ON, 溫) 세상 교실’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화순초는 올해 9월 교실을 구축했으며 최근 공개수업에서 ‘역사와 마음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섬, 독도’라는 주제로 베트남·홍콩과 3국 국제교류 화상 수업을 선보였다.

화순초 4학년6반 학생 18명은 개인 노트북과 PTZ(Pan-Tilt-Zoom) 카메라를 활용해 베트남 호치민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학생과 원격 화상 수업을 했다.



화순초등학교 ‘2030 온(ON, 溫) 세상 교실’에서 학생들이 베트남·홍콩 학생들과 국제교류 화상 수업을 하고 있다.

화순초는 해당 수업을 유튜브로 송출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 환경으로도 이목을 끌었다.

3국 학생들은 독도를 주제로 서로 협력해 독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협업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뒀다.

각 국 학생들은 화상 공동발표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결과를 실시간으로 교환했다.

홍콩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자 화순초교와 베트남 호치민한국국제학교 학생들도 함께 부르며 ‘독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눈길을 끌었다.

모든 화상수업에는 화순초교 이서분교 3~4학

년 학생들이 공동 참여해 농어촌 학교의 한계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 경험을 나눴다.

화순초교는 기존의 전면식 수업을 탈피해 모듈별 탐구·토의형 학습을 확대하고 교실 벽면 전체를 디지털 보드로 구성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의적 학

습 환경을 마련했다. 교실 내부는 ▲팀 프로젝트를 위한 협업 공간 ▲디지털 기반 학습과 창작 공간 ▲국제 공동수업을 위한 발표·공유 공간 ▲편안한 휴식과 사색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1인 1노트북, 스마트보드, PTZ 카메라, 스마트미러, 인터랙티브 빔프로젝트, 미러링 솔루션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가 갖춰져 있어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지흥구 담당 교사는 “‘2030 온(ON, 溫) 세상 교실’은 이름처럼 ‘따뜻한 배려(溫), 디지털 연결(ON), 모두의 참여(온)’라는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세계시민교육과 디지털 혁신, 국제교류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조영래 교장은 “2030 온(ON) 세상 교실은 미래 세대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계 친구들과 협력하고, 농어촌 한계를 넘어 글로벌 학습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반으로 공간·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생각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꿈 꿀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옥 기자

카자흐스탄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광주 찾는다

광복 80주년 맞아 市교육청 등 추진

최재형 선생 후손 등 20여명 초청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광주를 찾는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8~22일 독립운동가 후손인 청소년들을 초청해 ‘역사·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초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린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으로서 연대의식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광복회광주시지부가 함께 추진했다.

프로그램에는 독립유공자 최재형·계봉우 선생의 후손 5명을 포함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독립활동을 한 이들의 후손 청소년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19일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 및 독립운동 역사 특강 ▲5·18 사적지 전일빌딩245탑

방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견학 등 근현대사의 중심에 선 광주의 의로운 역사와 예향의 도시광주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20일에는 ▲기아오트랜드 광주공장 산업체 탐방 ▲월곡동 고려인마을 방문, 미술관·역사관 탐방 ▲송의과학기술고 고려인학급과 함께 하는 진로 체험(바리스타, 드론, 웹툰) 등을 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광덕고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교류 활동, 학교 급식 체험 ▲국립5·18 민주묘지 방문 ▲소쇄원, 한국 가사문학관 탐방 ▲광주시청 방문, 18층 전망대 탐방 등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교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 학생들이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중·고등학생 34명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고려인 강제 이주 역사

를 살펴보는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박선옥 기자

동신대-강진문화관광재단 ‘맞손’

관광 활성화·우수인재 양성 등 협력

동신대학교는 “최근 강진군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 관광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강진군 문화관광 사업에 유학생 등 동신대 재학생 참여 확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송경용 동신대 대외협력부총장은 “대학이 가진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강진의 문화·관광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전남대 ‘K-수산해양’ 협력 방안 모색

오늘부터 이틀간 여수캠퍼스 등서

동아시아 전문가 참여 국제포럼

전남대 주관 ‘K-수산해양 성과 확산을 위한 국제 전략 포럼’이 18~19일 이틀간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유담마리나 호텔에서 열린다.

17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포럼은 대한민국의 수산·해양 혁신 사례를 국내·외에 알리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립대만해양대학(NTOU),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IOCAS), 일본 후쿠이현립대학 등 동아시아 해양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K-수산해양 육성 전략은 물론, 기후·식량 위기부터 디지털 혁신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K-해양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수산·해양산업 혁신을 국가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전남도도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해양수산융합 블루테크 집적화 단지

조성 ▲수산물 수출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난 11대 대선 공약사항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포럼 첫날인 18일에는 해양 수산업의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는 해조류 양식과 블루카본 활용 전략 등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이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 환경오염 등의 난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과 스마트 어촌 구현을 위한 청사진에 대해 얘기한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내 스마트 수산해양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남대 수산해양대학이 보유한 K-수산해양 혁신 성과와 미래 전략이 소개되고, 해양수산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합동 토론회도 진행된다.

서호영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학장은 “이번 포럼이 K-수산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지역 산업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365일 관리

☑가족구성 가능

☑사용기한 없음

☑전문 이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CMYK